

변우석 “박보검·박소담 부담감 있었지만 즐겁게 촬영해”

“저보다 경험이 많은 박보검, 박소담 두 친구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어떻게 다가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배우 변우석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가진 tvN 월화극 ‘청춘기록’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변우석은 ‘청춘기록’에서 금수저 ‘원해효’로 분했다. 박보검(사해준 역)과 함께 모델 출신 배우로서 ‘스스로’ 능력을 펼치고 싶어하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지원하는 모친 신애라와 갈등을 빚는다.

사해준의 팬이자 연인인 박소담(안정하 역)을 두고도 삼각관계를 그려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뤄가는 사해준을 보며 열등감이 휩싸이는 청춘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변우석은 “해효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이고 방향성도 비슷해 감정을 이해하기 편했다”며 “감독, 작가, 동료 배우, 촬영팀 모두 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 촬영”이라고 좋은 소감을 전했다.

청춘기록의 ‘따뜻한’ 결말이 좋다. “엄마와의 관계도 따뜻하게 끝났다. 극 자체가 섬세하고 좋은 대사들도 많다. 어느 한 쪽도 슬프지 않게 따뜻하게 끝나서 좋다.”

처음에는 ‘원해효’보다는 ‘사해준’에 좀더 공감 갔다. 그는 “사실 해효라는 캐릭터가 공감하기 쉽진 않아서 초반 감독과 얘기를 많이 했다”며 “해준은 자신의 힘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서 꾸준히 달려가는 친구라 그런 부분이 와닿았다”고 말했다.

해효와 마찬가지로 모델 출신 배우로서 어려운 적도 많았다. “저도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고,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제 모친은 해효의 엄마인 신애라보다는 해준의 엄마인 하희라 쪽에 가깝다고 했다.

“첫 도전은 모델이라는 직업으로 했는데 결과 바로 나오지 않아 불안하고 쉽지 않았다.

‘청춘기록’ 박보검과 죽마고우, 금수저 ‘원해효’로 열연

모델 출신 배우 공감대… “처음엔 사해준에 더 공감”

“실제 엄마는 신애라 보다 하희라 쪽… 뒤에서 응원”

그때 엄마도 여러가지 다른 걸 생각하면 어쩌나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 서부터는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응원을 많이 해줬다.”

사랑과 우정 중 결국 우정을 택한 해효의 모습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은 없지만 상상을 해봤다. 여자를 사랑하는 기간과 친구와 있던 기간을 생각해 봤다”며 “아무래도 내 슬픔, 행복 등 많은 감정을 공유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된다. 해효의 선택이 공감 된다”고 말했다.

사랑과 우정 중 결국 우정을 택한 해효의 모습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은 없지만 상상을 해봤다. 여자를 사랑하는 기간과 친구와 있던 기간을 생각해 봤다”며 “아무래도 내 슬픔, 행복 등 많은 감정을 공유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된다. 해효의 선택이 공감 된다”고 말했다.

극중 죽마고우로 나오는 박보검, 권수현(김진우 역)과 함께 셋이 사석에서 자주 만났다.

“셋이 초반에 모임을 갖고 대본 얘기도 하면서 밥 먹고 놀았다. 보검이가 술을 못해서 주로 점심에 만나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 얘기했다.”

실제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재미있게 촬영했다. 그는 “또래이기도 하고 촬영하는 느낌보다는 노는 느낌으로 했다”며 “셋이 노래방에서 놀기도 하고 잘 어울리는데 즐겁게 촬영했다”고 회상했다.

“박소담도 촬영장에서 초반 어색해하는 내게 편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다”며 “덕분에 촬영장에서 재미있게 촬영했다.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엄마” 신애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보였다. “대선배기도 하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이라 대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첫 촬영부터 진짜 아

들처럼 대해주셨다. 현장에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덕분에 엄마의 아들이라는 캐릭터를 더 잘 할 수 있었다.”

“청춘기록이 자신에게 ‘행운 같은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다”며 “따뜻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춘이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이면 청춘인 것 같다. 나를 포함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겨내고, 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청춘이다.”

일이 없을 땐 취미로 무엇을 할까. 그는 “최근 낚시에 관심이 생겼다. 배를 타고 나가면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재밌지만 풀려있는 바다를 보며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두번 정도 나가봤는데 너무 좋았다. ‘도시어부’ 프로그램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예능 출연은 아직 두려움이 있다. “‘도시어부’ 애정자이긴 한데 방송에서 보는 거랑 실제 촬영은 다를 것 같다”면서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고 했다.

롤모델로는 미국 배우 티모시 샬라메를 언급했다. “영화를 봤을 때 감성이 디테일하고 감정 이입이 잘 된다. 나도 그런 배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작업하고픈 여배우로는 한지민과 한효주를 꼽았다. 그는 “전 소속사(BH엔터테인먼트)에서 종종 봤는데 함께 연기해보고 싶다”며 “데뷔 전부터 좋아했다”고 말했다.

8월말 ‘청춘기록’ 촬영을 마친 후 9월부터는 영화 ‘소울메이트’를 촬영하고 있다. ‘소울메이



트’는 중국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변우석 외 김다미, 전소니 등이 출연한다. 데뷔 후 첫 영화에 도전한 변우석은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라며 “김다미, 전소니와 셋이 각자의 성장을 보여주는 이야

기다. 많은 기대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하면서 나도 힐링하는 느낌을 받지만 제 연기를 보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아이즈원, 2년만에 日오리콘 주간 차트 1위

‘컬러라이즈’ 이후 다섯 앨범 연속 오리콘 TOP5 진입

그룹 아이즈원(IZ*ONE)이 2년 만에 오리콘 정상을 차지했다.

일본 최대 음반판매량 집계 사이트 오리콘이 27일 발표한 주간 앨범 랭킹에 따르면 아이즈원의 첫 번째 일본 정규앨범 ‘트웰브(Twelve)’는 10월 셋째 주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이즈원의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는 지난 2018년 발표한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COLOR*IZ)’ 이후 2년 만이다.

또한 ‘컬러라이즈’ 이후 다섯 앨범 연속 오리콘 TOP5에 진입했다.

지난 21일 발매된 아이즈원의 일본 정규 1집 ‘트웰브’는 일본 현지에서 발표된 데뷔 싱글과 한국에서 발매한 정규앨범

타이틀곡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된 음반이다.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好きと言わせた)이”부터 ‘뱀파이어(Vampire)’까지 수록되어 있다.

특히 ‘라비앙로즈’, ‘비올레타’, ‘피에스타’의 일본어 버전은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3명의 일본인 멤버가 직접 작사를 맡아 주목받았다.

한편 아이즈원은 지난달 온라인 단독 콘서트 ‘오나이릭 씨어터(ONEIRIC THEATER)’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임시완 X 신세경 ‘런온’ 12월 16일 첫 방송

올 겨울 감성 충만한 로맨스 예고

JTBC 새 수목드라마 ‘런온’이 오는 12월 첫 방송을 확정하며 올 겨울 감성 충만한 로맨스를 예고했다.

‘런온’ 측은 28일 오는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일과 함께 배우 임시완, 신세경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런온’은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소통이 어려운 시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향해 ‘런온’할 로맨스 드라마다.

이날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임시완과 신세경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서로를 향해 미소를 띤 듯한 묘한 설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임시완은 단거리 육상 선수 ‘기선경’으로 분해 가을 하늘이 빛어낸 푸른빛에 해맑은 미소

를 더했다.매 순간 매 초가 중요한 육상의 세계, 100분의 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경쟁이 익숙한 그는 또 다른 타이밍의 세계에 빠져들 예정이다.

시작할 때와 헤어질 때, 다가갈 때와 표현할 때 등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는 수많은 타이밍의 기로에 서게 된 것. 한 번 결심하면 끝마로 질주해야 하는 스포티어 선견이 계속 다가가고 싶은 여자를 만나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갈지, 그의 로맨틱 레이스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신세경은 영화 번역가 ‘오미주’ 역을 맡았다. 티저 포스터에는 번역 작업을 하는 미주의 손이 따스하게 무르익은 가을 햇살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다.

그녀는 매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읽고 풀어낸다는



건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상의 의미를 담기 때문이다. 늘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녀는 선견을 만나 새로운 고민에 빠진다. 자꾸만 차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할지, 그녀의 사랑의 언어에 공명음이 울린다.

‘런온’은 ‘오늘의 탐정’, ‘김과장’의 이재훈 감독과 첫 미니시리즈에 출사표를 던진 신애라 박시현 작가가 기특한 작품이다.

방시혁 새 보이그룹 ‘엔하이픈’, 내달 30일 데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CJ ENM이 합작한 신인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오는 11월 30일 데뷔한다.

28일 소속사 빌리프랩에 따르면 엔하이픈은 이날 글로벌 공식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11월 30일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BORDER : DAY ONE)’의 발매 소식을 알렸다.

엔하이픈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CJ ENM의 합작법인인 빌리프랩 소속으로 희승, 제이, 제이크, 성훈, 선우, 정원, 나키 등 다국적 멤버 7인으로 구성된 보이 그룹이다.

데뷔 전부터 글로벌 숏 비디오 플랫폼 ‘틱톡’, 엔하이픈 멤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및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위버스 가입자 수도 30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엔하이픈은 두 편의 트레일러 영상과 콘서트 무드보드 등을 공개하며 데뷔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엔하이픈의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앨범 판매처와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근,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 MC 재능기부

방송인 이수근이 올해도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 재능기부를 이어나간다.

28일 송파구 하트하트재단 리사이틀 홀에서 열리는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들이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 음악 경연 축제로 2017년 처음 시작해 4회째를 맞았다.

이수근은 2018년부터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의 MC로 재능기부를 펼쳐 왔으며, 올해로 3번째 참여에는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됐다. 이수근은 본 대회에서 본선 진출 참가팀의 연주자들과 함께 감사·선물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본 대회는 28일 오후 1시 SK이노베이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